코스콤 · NBP 금융 클라우드 행사 축사
(13시 30분, 콘래드 호텔 5층 파크볼룸)

클라우드와
지속가능한 금융혁신

2019. 10. 23.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손 병 두

Ⅰ. 인사 말씀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손병두입니다.

코스콤과 **네이버비즈니스플랫폼(NBP)**이
함께 하는 **금융 클라우드 서비스**의 출범을 맞이하여

코스콤 정지석 사장님과 **NBP의 박원기 대표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해 항상 힘써주시는
정무위 민병두 위원장님과
유동수 법안소위 위원장님,
최운열 의원님께도 감사드립니다.

Ⅱ. 금융 클라우드의 중요성

최근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 과정에서
금융과 IT의 융합이 확대됨에 따라
금융 분야에서 생성·처리되는 데이터의 양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IT자원을 직접 소유하지 않고도**
필요한 만큼 빌려쓰고 탄력적으로 활용하는
클라우드가 **금융 분야에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❶우선, **클라우드**는
금융업에 필수적인 대량의 IT관련 물적 설비를
직접 갖추지 않고 아웃소싱할 수 있도록 하여
금융산업의 진입장벽을 **크게 낮추었습니다.**

이를 통해, **핀테크 기업** 등 **새로운 플레이어**가
등장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기존 **금융회사**도
클라우드 사용량에 따른 **합리적 부담**으로
비용 최적화를 이루어 낼 수 있습니다.

❷또한,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들이
고객과 **네트워크**를 **확장**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IT자원을 **신속하게 확보**하도록 함으로써
플랫폼 경쟁력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❸나아가, **클라우드**는 **인공지능 · 빅데이터 · 머신러닝** 등
신기술의 적용 과정에서
대용량 · 고성능의 **데이터 처리**를 가능케 하는 **인프라**로서
혁신적인 금융서비스 개발의 촉매가 됩니다.

이처럼 클라우드는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핀테크 기업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금융혁신의 마중물 역할을 해낼 것으로 기대됩니다.

Ⅲ. 금융 클라우드 관련 검토 과제

여러분, **지속가능한 금융혁신**은
금융안정의 기반 위에서만 가능합니다.

금융혁신을 위한 **클라우드 이용**에 대해서도
금융안정 차원에서 **검토해야 할 과제**들이
다양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❶**국제결제은행(BIS), 금융안정위원회(FSB)** 등에서는
금융회사의 **클라우드 이용**에 따라 **증가**하는
제3자 리스크(Operational Risk of Third Party)에 대해
국제적인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소수의 빅테크(Big Tech)**들이
글로벌 클라우드 시장의 **과반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 글로벌 시장점유율(`19.2Q) : AWS(아마존) 33%, MS 16%, 구글 8%

특정 **클라우드 사업자**에 지나치게 의존할 경우
해당 사업자의 **시스템 장애**가
다수 금융회사의 **서비스 중단**으로 이어지는
집중 리스크(Cloud Provider Concentration Risk)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❷한편, **전자상거래, 디지털 재화·서비스의 교역,**
국경간 데이터 이전 등에 대해 현재 진행 중인
디지털 통상(Digital Trade) 논의에도 주목해야 합니다.

클라우드를 통한 **국경간 데이터 이전**이
글로벌 디지털 경제를 **촉진**하는 **긍정적**인 면이 있지만

IT설비가 해외에 있는 **클라우드 사업자**에 대해
각 국의 정부와 **금융회사**가 어떻게
관리·감독할 것인지도 **고민**해봐야 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금융 분야에 노하우가 있는 **코스콤**과
국내 클라우드 사업자인 **NBP**가 함께
금융에 특화된 클라우드 서비스를 개시하는 것은
적지 않은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Ⅳ. 정부의 클라우드 정책 추진경과 및 당부사항

정부는 **클라우드**에 관한 **정책**을 **꾸준히 추진**하여
'디지털 금융혁신'과 **'데이터 경제 활성화'**의
초석을 마련하기 위해 힘써왔습니다.

금융회사나 **핀테크 기업**이
금융 클라우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의 범위**를
기존의 **비중요 정보**에서 **개인신용정보까지 확대**하고
공공 부문의 **클라우드 이용**도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금융회사, 핀테크 기업, 클라우드 사업자 등이 참여하는
금융 클라우드 협의회(Working Group)를 통해
현장의 의견도 수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금융소비자 보호, 금융감독권의 확립** 등
금융 클라우드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조치들도 마련해 나가고
불합리한 규제는 신속히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제도개선의 노력**들은
민간 부문의 노력 없이는 **현장에 안착**하기 어렵습니다.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도 책임감을 갖고
클라우드를 **모니터링하고 관리**할 수 있는
체계적인 **내부 통제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합니다.

또한, **클라우드 사업자**도 **'전자금융보조업자'**로서
금융산업을 지원하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면서
정보보호와 보안에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Ⅴ. 마무리 말씀

혁신의 주기가 갈수록 **짧아지고** 있는 지금,
과거와 같은 **정적 안정성**의 시대는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 **지속적인 혁신**을 위해서는
쓰러지지 않고 나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자전거 페달을 밟는 것처럼
역동적 안정성*(Dynamic Stability)을 추구해야 합니다.

* Astro Teller, Google 연구개발조직인 X의 CEO

우리는 **가속화**되고 있는
디지털 금융혁신의 흐름에서 도망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 안으로 뛰어들어 그 흐름을 수용하고
더 빨리 움직여 **'역동적 안정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 금융회사, 핀테크 기업, 클라우드 사업자
모두의 **힘과 지혜**를 모아
안전하고도 효율적인 금융 클라우드 활용 방안을
진지하게 **모색**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금융 클라우드와 **지속가능한 금융혁신**에 대해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